

2018 JUNE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8.06.15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2018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의 3개국 8개 도시 17개 대학에서 6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관련기사 p.8)

키르기스스탄
(관련기사 pp.2-3)

제 15 회 대학생 한국학퀴즈대회, 2018 키르기스스탄 교육박람회, 키르기스-한국대학 자매협정 외

투르크메니스탄
(관련기사 p.4)

제 3 회 한국주간, 제 9 회 한국어말하기대회, 진기훈 대사 초청강연

카자흐스탄 1
(관련기사 pp.5-6)

카자흐 국립대-상명대 학생간담회,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 문화의 날, 동카자흐 한국어경연대회 외

카자흐스탄 2
(관련기사 pp.7-8)

Global Triangle Education 아카데미, 해외다문화실습,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키르기스스탄

제 15 회 대학생 한국학퀴즈대회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교수협의회(회장 김창석)가 주최하고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소장 한 벨리)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 15 회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한국학퀴즈대회”가 2018년 3월 31일 비슈케크 인문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비슈케크 인문대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 마시라포프 탈레베크 학장의 개회사와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김현정 서기관의 축사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한베체슬라프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어를 통해 고려인과 키르기스인 그리고 한국인이 하나가 되고 한국어의 우수성을 이 땅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경연에서 한국학과 및 제 2외국어(부전공)로 한국어를 배우는 각 대학의 예선을 통과한 120여 명의 학생들이 250개의 퀴즈문제를 풀며 그동안 같고 닮은 한국어 및 한국학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 국립대, 아라바예프대, 언어문화대, 법률대, 농업대, 케인대, 키르기스-한국대, 중앙아시아 한국대, 오슈 공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재학생 및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된 퀴즈대회 경연 결과 대상의 영광은 4학년 박 인나(비슈케크 인문대 4학년)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쿼미샤이(오슈 공대 1학년)가, 아이자다(비슈케크 인문대)가 차지했다. 이외에도 4등, 5등, 장려상(5명), 노력상(10명)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대상을 받은 박 인나 양은 “대학 마지막 학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행복하고 지도 교수님께 감사 드리며,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을 잇는 훌륭한 인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8 키르기스스탄 교육박람회

2018년 5월 26일(토) ‘로자 오펜바예바(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재단’이 주최하는 2018 키르기스스탄 교육박람회가 ‘필하르모니아’ 키르기스스탄 국립극장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201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6 회째에 이르는 이 박람회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키르기스스탄의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관련 업체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큰 행사이다.

매년 개최되는 이 박람회에는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온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키르기스-한국대는 매년 이 박람회에 참여하여 학교 홍보는 물론 한국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특히 박람회에 참가한 교육기관 별로 준비한 공연을 당일 중앙무대에서 펼치게 되는데 관람객들의 큰 호평을 받는 행사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키르기스-한국대도 매년 학생들이 평소 연마해 온 사물놀이, 부채춤, 태권도 등 공연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한국대학 자매협정

2018년 2월 28일 키르기스-한국대학은 한국의 선문대 ‘이슬람권 진출 중소기업·협력파트너 인력양성사업단’(단장 허태희)과 상호 학술교류를 위한 자매협정을 체결하였다. 자매협정 체결을 위해 사업단장인 선문대 허태희 교수와 행정학부 권경득 교수가 키르기스-한국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체결식을 거행하였다. 양 기관은 올해 첫 번째 교류협력사업으로 선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8 하계 중앙아시아 3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단기전공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선문대 재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이슬람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탐방학습과 교육을 실시하는 의미 있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되는 키르기스스탄 교육 기간 중에는 키르기스-한국대의 학생들도 도우미로 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중앙아시아-한국대 양해각서

2018년 1월 12일 중앙아시아-한국대(Korean Institute of Central Asia, 총장 베이세날리예바 굴시야)는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플러스사업단(단장 함한희)과 교육 및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앙아시아-한국대와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북대 사업단은 향후 교수·직원·연구원의 네트워크 구축, 학생 교환, 학술자료·출판 및 정보 교환, 연구 프로젝트 추진, 학술 모임 추진, 국제컨퍼런스 추진, 인류학적 현지조사 및 연구 협력, 고고학적 발굴 및 문화유산 조사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5월 31일 중앙아시아-한국대와 동국대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가 교육 및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국대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는 소장인 윤명철 교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술 교류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중앙아시아-한국대도 본 연구소의 다양한 학술연구교류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3월 22일 중앙아시아-한국대와 비슈케크 28번 쉬콜라-리체이(교장 벡투르구노바 G.)와 상호 교육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비슈케크 28번 쉬콜라는 한국어교실을 오래 전에 개설하여 평소 한국어에 큰 관심을 가진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키르기스-한국대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콘텐츠를 학교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전통명절인 나우루즈 행사를 축하하는 공연도 같이 진행되었다. 28번 쉬콜라 학생들은 키르기스 전통공연과 더불어 한국어로 준비한 연극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큰 갈채를 받았다. 키르기스-한국대학 학생들은 사놀이 공연을 신명 나게 펼쳐 보였다. 본 행사에는 평소 28번 쉬콜라의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온 비슈케크 한국교육원 민재식 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투르크메니스탄

제 3 회 한국주간

2018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 3회 한국주간 행사가 투르크멘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동양어학부 건물에서 열렸다. 한국주간을 위해, 한국어과 학생들은 동양어학부 건물의 1층 복도를 한국 관련 사진과 포스터, 태극기로 장식하고 네 코너로 나누어 한식, 사물놀이 악기, 한글 그리고 한복을 전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통놀이인 투호,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식 코너가 가장 인기가 높아 준비한 김밥은 순식간에 동이 났으며 한복 코너에서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싶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였다. 투르크멘 학생들은 특히 투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 참여하였다.



제 9 회 한국어말하기대회

2018년 5월 12일(토) 제 9회 한국어말하기대회가 투르크멘 국립 아자디세계언어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 대회는 아자디대학교 한국어과가 주관하고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과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한국기업들의 후원 아래 진행되었다.

제 9회 대회는 새로 부임한 진기훈 대사(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작년에 이어 동일하게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 실력을 겨루었으나 올해는 “한국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투르크멘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또한 태권도 시범단의 인원도 증가하여 약 20명이 넘는 한국어과 학생들이 공연에 참여하였고 부채춤, 투르크멘 전래동화 연극 등 두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청중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한국어말하기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아자디대학교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으며 한국어과 학생들에게도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진기훈 대사 초청강연

2018년 5월 29일(화) 아자디 세계언어대학교 소강당에서 진기훈 대사(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 초청강연이 사파르무랏 차리예프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과 한국어과 학생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진기훈 대사는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하고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맺어 온 형제국가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양국이 향후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 한국어과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바람과 고민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대사관에서 준비한 한국 관련 잡지와 한국어로 번역된 투르크멘 동화, 그리고 삼성 이어폰을 선물로 받았다.



카자흐스탄

2018 카자흐스탄 동양학올림피아드

2018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동방학부에서 카자흐스탄 동양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 참가자들은 그 동안 쌓아 온 한국학 분야(역사, 언어)의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지급되었다.

한국학올림피아드는 명실공히 카자흐스탄 최고의 지식 겨룸의 장이며, 한국학도에게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제고시켜주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다.



카자흐 국립대-상명대 학생간담회

2018년 2월 9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상명대 한국어문화학과 김한식 교수와 대학생 11명이 방문하여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학생들과의 만남과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양교 학생 간의 만남을 통한 교류와 우호 관계 구축 및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향후 교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신한은행 장학금 수여식

2018년 1월 29일 카자흐 국립대 본관에서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이미 수년째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행사로,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국학 전공 학생들에게 한국학에 대한 큰 관심과 열정을 제고시켜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총 6명의 한국학과 재학생들이 3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원 받았다.



카자흐스탄

한국 문화의 날

2017년 12월 13일 주말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은 공공 외교의 일환으로 크질오르다 국립대를 방문하여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도전 골든벨 형식의 한국 문화 퀴즈 대회, 한국 음식 체험, 총영사 특강, 케이팝 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 케이팝 공연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유명 케이팝 커버 그룹들뿐만 아니라 한국어학과 학생들도 직접 공연을 하여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후원으로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학과가 주관하여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유학 설명회

2018년 2월 4일 동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어교사모임 주관으로 한국유학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언어연수부터 국가장학생까지 다양한 한국유학의 종류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학생들이 한국유학을 보다 가까이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각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실제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한국유학의 길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중심으로 유학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한국 유학 설명회를 개최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유학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 1 회 동카자흐스탄 한국어경연대회

2017년 12월 19일 동카자흐스탄 오스카멘의 동카자흐 국립대에서 제 1 회 동카자흐스탄 한국어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동카자흐스탄 한국어교사모임이 주최하고 동카자흐스탄 고려인연합회,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 동카자흐스탄에 있는 4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2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유감없이 펼쳐 보였다. 대회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 말하기와 쓰기가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관련 경연대회는 알마티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국어 교육 1년 이하를 초급으로, 그 이상을 중급으로 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준별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3명에게 부상으로 한국문화원에서 후원한 기념품이 제공되었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알마티에서 개최될 한국어 경시대회 참가 우선권이 지급되었다.



카자흐스탄

GTE 아카데미

2018년 2월 9일(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에서 GTE(Global Triangle Education) 아카데미 수료식이 있었다.

1월 15일부터 4주간 부산외대 러시아중양아시아학과와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지원하는 CORE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부산외대-세계언어대-현지기업 3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상엽 관장(KOTRA 알마티무역관), 이광희 법인장(우림건설), 김상수 법인장(Autogas Almaty)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관계자들이 부산외대 러시아어전공 학생 10명, 세계언어대 한국학전공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현지의 기업실무요령, 카자흐스탄의 기업 환경 등 경제와 관련한 특강을 맡아 주었다. 또한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나르호즈대의 한국학 교수들이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언어 분야의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학으로서의 중앙아시아의 특수성을 소개하였다.

특강 외에도 학생들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크질오르다를 방문하였으며, 중앙아시아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위해 비슈케크 인문대, KIMEP 대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황을 체험하기 위해 Autogas Almaty(대표 김상수)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현장학습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의 책임자인 이재혁 교수(부산외대)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GTE 아카데미 사업이 2017년에 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특강과 견학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마련되어 기대한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부산외대와 세계언어대 학생들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다문화교육 현장실습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에서 부산외대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의 해외다문화교육 현장실습이 실시되었다.

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 3명이 김지혜 교수의 인솔 하에 세계언어대를 방문하여 한국학과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하였다.

1월 30일(화)에는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1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였고, 1월 31일(수)에는 2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문법 수업을 진행하였다.

2월 1일(목)에는 한국학과 2학년 27명을 대상으로 Quest 수행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제기차기,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 한국의 놀이문화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실제 놀이에 참여하게 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카자흐스탄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18년 2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다. 세계언어대 본관에서 개최된 이번 경시대회에는 어문학, 통번역, 한국어의 3 개 부문에 알마티, 아스타나, 악토베, 크질오르다,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타라즈, 비슈케크, 노보시비르스크 등 3 개국 8 개 도시 17 개 대학에서 60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카자흐스탄 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어올림피아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9 개 언어에서 어문학, 통번역, 복수외국어 3 개 영역 25 개 부문에 걸쳐 400 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본 대회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언어경시대회이다.

전체 개회식은 23 일 제 1 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식을 마치고 언어별로 대회가 진행되어 어문학과 한국어부문의 문법, 어휘론, 문학, 문화 등의 테스트와 작문이 실시되었고, 통번역부문은 번역 시험이 실시되었다. 오후에는 다른 도시에서 참가한 학생들을 위해 알마티 견학이, 인솔교원들을 위해 간담회와 특강이 진행되었다. 교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대학별 한국학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학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어진 KF 특강에서 이근중 교수(KIMEP 대)는 “한국과 유라시아경제통합”을 주제로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 및 기업 문화의 특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24 일 어문학은 김현민 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 백태현 교수(비슈케크 인문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대중문화’를 주제로 발표한 참가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하였다. 통번역은 오영교 이사(신한파이낸스), 김 올레크 대표(법무법인 CIS Group), 전 엘레나(총영사관 통역), 이브라예프 다울레트(주카자흐스탄 대사관 통역)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참가자들의 번역과 통역을 심사하였다. 한국어는 문성기 소장(KF 모스크바사무소), 강상엽 관장(KOTRA 알마티무역관), 이유직 영사(총영사관), 김상수 법인장(Autogas Almaty)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참가자들의 말하기를 심사하였다.

시상식을 겸한 폐회식에는 전승민 총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가 참석하여 한국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심사 결과에 따라 1 위 3 명 300 달러, 2 위 3 명 200 달러, 3 위 4 명 100 달러, 장려상 10 명 15,000 텡게씩의 상금이 주어졌다. 특히 한국어부문의 1 위 올메세코바 라다(세계언어대 4 학년)은 KF 한국어연수펠로십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대학에서 1 년간 언어연수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8 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알마티 총영사관, 법무법인 CIS Group 과 이재혁 교수(부산외대), 김영대 대표(대양종합상사), 박필성 원장(부산 필피부과)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개인들의 후원으로 여러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었다.

